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28.62	↓ 코스닥	738.35
	(+16.28)		(-7.19)
↑ 금리 (미국 9년)	2.621	↑ 환율 (원-달러)	1453.95
	(+0.023)		(+1.05)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  
연간 4000억  
임대료 정산 차질  
02



## 고삐 풀린 집값에 정부 ‘화들짝’ 한 달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강남3구 이어 용산구 까지 규제  
압구정·여의도·복동 등 인근지역  
과열 양상 지속 땀 추가지정 검토  
가계대출도 조여 투기 수요 근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이면서 시장 불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며, 필요할 경우 지정 연장

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압구정·여의도·복동·성수동 및 신통기 획 단지 등 서울시 내 기존 토허제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도 조인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껌투자는 할 수 없다. 개발 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HBM 3E 12단, 빠르면 2분기 시장 주도”

###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중 저가 공세… 고부가 제품 대응  
파운드리 3나노 수율 안정화 집중  
AI 로봇 ‘볼리’ 등 신규 사업 예고

“2분기 5세대 HBM(HBM3E) 12단 개선 제품 공급을 본격화하고, 6세대 HBM(HBM4)은 실기하지 않고 주도하겠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19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HBM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영진들은 주주들의 질타에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과오를 되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 부회장은 HBM3E 공급 준비 현황에 대해 “현재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

으로 반영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2분기 HBM 3E 12단 제품이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BM, DDR5, 서버용 SSD 등 고성능·고용량 제품에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진이 지속되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2나노 수율 안정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은 “3나노 및 2나노 GAA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공정 최적화뿐 아니라 수율 안정화 및 랩업(양산 속도 개선)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DX부문은 ‘차별화된 AI로 모두를 위한 인텔리전스 구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 경험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가전 등 전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홈’ 부문에선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등 신규 사업 모델도 예고했다. 로봇 사업 분야에선 사업장 내 제초봇, 키친봇 등을 추진하면서 유망기술 투자와 인수도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와 IT 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다.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히트펌프 등을 앞세워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유통채널을 강화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AI 등 3대 게임체인저에 3.4조 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최상목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트럼프 관세 리스크 최소화 만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기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예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기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김문수 장관 “어려울 때 정부 채용박람회 확대 필요… 지역서도 해야”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韓정부 관여 안돼… 美 연구소 방문객 민감 정보 부주의 취급” /사진 뉴스1

▲ 권성동,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적절한 조치”  
▲ 유승민,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에 “文 바보 같은 실책 되풀이”

▲ 법사위, 야당 주도로 오는 26일 현안질의 명태균 증인 채택  
▲ 외교부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협정 조약 환영”